



* 등급정보 (닭고기) *

▷ 21개 업체에서 생산한 247만수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77만8천수(31.5%), 1등급은 169만2천수(68.5%)를 차지, 전월대비 14만4천수(5.5%) 감소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10년 1~2월	5,084,872 (100.0)	1,647,376 (32.9)	3,333,396 (65.6)	77,100 (1.5)
10년 1월	2,614,420 (100.0)	896,475 (34.3)	1,641,845 (62.8)	76,100 (2.9)
10년 2월	2,470,452 (100.0)	777,901 (31.5)	1,691,551 (68.5)	1,000 (0.0)

주) 2007.3.26일부로 닭고기 등급판정 재개

* 축산뉴스 (닭고기) *

↓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농식품부가 철새들이 봄철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방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내 AI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할 방침. 농식품부는 과거 AI 항원·항체 분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철새도래지 42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소독을 주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상예찰도 주 1회에서 3일 간격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또한 소독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농가 주변도로에는 광역방제기를 통한 소독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고 가금류 운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협회와 기관이 참여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TF팀'을 운영해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독려와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 계육협회, 10억7천500만원 예산 승인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가 지난 2월 23일 경기 분당에 소재한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 예정산안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예산 금액은 총 10억7천500만원, 일반회계 8억9천200만원, 간행물 특별회계 1억8천300만원 등 수지예산과 주요계획 추진을 승인했다. 이에 계육협회는 올해 축산법에 계열화 근거마련, 포장육 전면시행, 닭고기수출시장 확대, 육계 대표조직 육성, 유통구조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계육협회는 정관개정을 통해 정회원을 통합경영주체 및 육용계 사육농가로 확대하고 임원이사를 15명에서 20명까지 늘리는 등 규모를 키웠다. 협회 연회비는 농가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규모에 따라 1만원과 2만원, 육용종계와 부화장 역시 규모에 따라 3만6천원부터 12만원 등으로 정했다.